



"계율 법문을 듣고 나서 계를 받으니 수계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10월 9일 동화사 보살계 수계불자) "우리 향천선원에서는 10월말부터 해인사 율원장 해능 스님 등의 선지식을 모시고 계율공부를 시작합니다.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가 계율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리공부와 더불어 지계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옥 서을 향천선원장)

# 계율 중요성 새롭게 인식한 場

성립과정·정신 등 전반적 문제 다뤄  
인류가 겪는 난제 해결 키워드 제시



8월6일 입제해 10월9일 회향한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는 계율의 의미, 지계의 중요성, 교육이 필요함을 확산시킨 대종법회였다.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 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해 8월 6일부터 시작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가 10월 9일 보살계 수계법회로 회향했다. 이번 법회는 계율 관련 첫 대중법회라는 의미와 함께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연인원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계율이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임을 분명히 했고, 계율교육의 필요성과 지계의 생활화라는 공감대를 넓혔다. 또 재가불자들에게 '계율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계율성립과정부터 경전속의 지계정신, 종단제도, 한국불교 계맥전승 등 계율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과제도 제시했다. 계율수행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규범임을 확인했다. 또한 계율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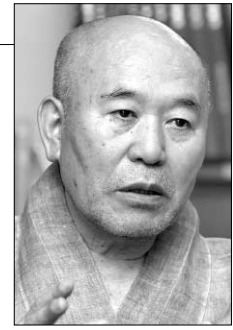
손·전쟁·테러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근거도 찾았다. 계율에 대한 관심 고조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산 해곡)가 선원공동청규제정을 위한 위원회구성, 가산불교문화연구소의 '근대한국불교종교문화사' '운율사' 심포지엄, 서울 향천선원의 계율강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천선원의 이번 법회는 계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계율교육을 위한 전국 각 불교대학이나 사찰에서 계율강좌가 개설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종단 차원의 '계율지침서'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계율해설서 출간, 자자·포살법회 상설화, 계율지도법사(술사) 양성, 한글 계율용어 해설집 편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철우·배지선 기자

##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할 행동규범"

지성 스님 (동화사 주지)



"스님들만 알아야 한다며 답을 쌓고 있던 계율 문제에 대해 사부대중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이 이번 법회의 수확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은 계율수행대법회의 성과를 이렇게 말했다. 계율이 불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꼭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윤리와 도덕으로 승화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신라시대 원광법사가 세속오교로 일반인들이 쉽게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 시대 국민들의 행동강령이 될 수 있도록 계율을 가르치고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회를 전반적으로 볼 때, '2%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면 아쉬움도 드러났다. 오랫동안 계율학을 공부했던 스님들과 뛰어난 교수들이 법주와 논찬자로 참여한 등 모든 것을 갖추고 계율법회가 그동안 동화사에서 열린 어떤 행사보다도 성황리에 마쳤지만 내용면에서 계율의 성립과정, 문화적 배경, 생활실상 등이 의미 있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 특히 남방계율과 북방계율, 계율에서 본 종단 제도 등은 터치도 못하고 넘어갔으며 아쉬워 했다.

지성 스님은, 계율을 주제로 어렵게 연법석이 아니만큼 계율수행법회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육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율에 관심 있는 스님, 학자, 사회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종합토론의 장을 향후 마련해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계율수행법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승가나 사회가 공감하는 문제(계율의 흐름, 법남이나 조선시대 때 계율이 훼손된 부분 등을 잘 정리해 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스님은 고등상식사회에서는 사회법이 필요 없다는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법조인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화사 주지를 맡은 첫째, 백교좌법회부터 이번 계율법회까지 매년 한 차례씩 신도들을 위한 큰 법회를 열어 '부지런하고 학구적인 주지스님'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성 스님은, 앞으로도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적인 면을 관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모든 사부대중과 공동주최자 현대불교신문에 감사함을 표했다. 또 출·재가자들에게 계율정신을 잊지 말고 생활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 이렇게 제안한다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가 첫 대중 계율법회인 만큼 법주스님들은 계율의 중요성과 지계의 식 확산을 위해 종단과 스님들, 그리고 재가자들을 향해 다양한 제안들을 거침없이 개진했다. 법회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요약·소개한다.**

#### 마성 스님(필리핀문헌연구소장)

##### '상가법' 도입하고 율장공부 확산

불교국가인 태국은 스님인구가 40만 명을 넘어 자발적인 계율로 상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스님들도 잘못하면 상가법에 따라 스님 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불교도 상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가법을 도입하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인한다.

보살계 수계법회를 할 때, <우바세계경> 6중28 경계를 재가자들에게 수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율장을 재가자들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율장을 공부해야 한다. 남방불교 스님과 재가자들이 율장을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도 율장을 공부하는 수행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 해능 스님(해인총림 율원장)

##### '재일'에 꼭 포살 했으면

6개월간의 행자교육 후 사미계를 받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계 후 2년 동안 계율과 승가원형, 승단의 조직, 종헌·종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제안한다. 계율을 가르쳐 기도하고 공부하는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가자들은 보름마다 자기 청정을 확인하고 지난 보름 동안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는 포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재가자들은 한달에 여섯 번, 열 번, 또는 하루만 해도 된다. 특히 재일(齋日)에 재계를 지키는 것이 재가자의 포살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재가자들이 '수계-지계-참회발원'으로 이어지는 계율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출가자들은 재가자의 포살·자자를 지도해줘야 한다.

####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

##### 스님들에게 술·고기 권유말길

승가를 외호해야 할 재가자들은 스님들에게 고기와 술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 재가자는 절에서 오신채를 먹자고 주장하거나 출가자가 만행할 때, 고기나 술을 공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출가자

가 술과 고기를 사팔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도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포살할 것을 제안한다.

남방에서 포살은 30여번 정도 소요된다. 합장하고 계승을 외우고 나면, 출가자가 하루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포살은 '작법참회(作法懺悔)'로, 자신의 죄목을 들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일면 참회를 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가벼운 참회법, 20여명 승가 앞에서의 참회법도 제안한다.

#### 법혜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출가연령 등 율장으로 더 점검해야

부처님의 근본사상, 사분율장의 정신, <범방경>의 정신을 살펴 독신출가 교단을 만들어 나가고 출가자들의 수행을 여법 원만하게 하도록 종헌·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과 힘을 합쳐 종도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가 시에 학력 구분, 연령 제한 등도 율장 정신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선교육 후독도제'도 율장을 더 참조해야 한다. 율장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비구계를 주고, 은사스님 밑에서 3-7년 계율을 배운 후에 수행하도록 돼있다. 수행 교단은 이판사판을 겸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사문화 되어가는 것 같다. 권력에 이끌리는 종단이 되지 않도록 계율을

더 알아야 하고 계율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

#### 철우 스님(파계사 명산율원 율주)

##### '오계' 계목을 적극적으로

현재의 삶에서 한걸음 나아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한 자세로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 또한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해서 가려서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오계의 계목을 적극적인 행으로 옮기는 제안을 해본다. 불살생(不殺生)은 '자비롭게 살라'로, 불루도(不偷盜)는 '배풀며 살라'로, 불사음(不邪)은 '청정하게 살라'로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불망어(不妄語)는 '진실하게 살라'로, 불음주(不飲酒)는 '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 여겨야 한다.

####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 '소의율장' 제정해 교육하자

현재 종단에 소의경전은 있는데 소의율장은 없다. 소의율장도 정했으면 한다. 소의율장을 정한 뒤, 한글로 정확히 번역해 가르쳐 주자. 자운 스님이 번역한 <사분비구계목>을 소의율장으로 제안한다.

출가자의 '육식과 오후불식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채식주의로 할지, 오후불식을 하

고 육식을 허용할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또 토굴·자동차 등의 소유는 승가공동체에, 사 용은 개인이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한다. 종단은 토굴 크기, 시설물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견박한 생활이 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하고, 승랍 10년 이하 출가자는 토굴생활을 금지토록 했으면 한다.

또 율장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출가자가 경험하는 지계실천상의 감동을 풀어줘야 한다.

####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 여법한 갈마통해 이해관계 해결을

호계위원회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제한을 풀어야 한다. 전체 대중의 참여로 이뤄지는 갈마와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율장에서의 만장일치제는 화합정신에 있다. 만일 가까이 스님이 없을 때는 20인 이상의 승단을 찾아가야 하며, 병이 들어 참석 못하면 병자를 들것에 싣고서라도 참석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원로회의의 역할을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 종교적 의례인 갈마가 교단 정치적·행정적인 분규 등의 법제 행위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그렇다. 원로회의의 어른들의 여법한 갈마를 통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불기 2549년

## 제9회 광주·전남 불교 합창 예술제



- 초대손님 : 싯다르타, 정보 스님, 오목대
-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오후 7시 | ● 장 소 :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상무지구)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23)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 출 연 : 항림사, 백양사, 원효사, 증심사, 원각사, 무각사, 한마음선원, 사암연합회 합창단

### 출연합창단

- ▲ 항림사 (해향 스님) 062-375-7600
- ▲ 백양사 (두백 스님) 061-392-7502
- ▲ 원효사 (현지 스님) 062-266-0326
- ▲ 증심사 (진화 스님) 062-226-0107
- ▲ 원각사 (도제 스님) 062-223-3168
- ▲ 무각사 (광민 스님) 062-383-0108
- ▲ 한마음선원 (혜월 스님) 062-373-8801
- ▲ 사암연합회 (일명 스님) 062-376-3223

불교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은 각 사찰 합창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광주 불교 사암 연합회